

‘전라북도가 언제나 함께 한다’

송하진 도지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5일 코로나19 감염상태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 전라북도가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처음 시작했다.

김승일/기자



北 “불미스러운 일로 남녘 동포에 커다란 실망감 줘 대단히 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복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이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에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연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앞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앞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일 오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전문 청와대요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에 불법 침입하였다

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는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던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현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

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는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백귀성/기자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면제하다 올해는 '이동량 제한' 위해 유료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를 권고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은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해 김 총괄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 시도, 10여개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 지역 내에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계를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다”며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가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정부 “여전히 백명내외... 가을철 유행 위험 차단해야”

강도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하루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백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어제,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비율이 20%대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25일 발표한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와 관련해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차별

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외식, 여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밀집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을 온 분들이지인과 모임으로 밀집될 위험성이 있다”며 집합이 금지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주말에는 추석 준비로 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 시장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기억해주시고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자 관리현황을 점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물결이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입국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은/기자

Advertisement for 'H.O.T Festival 2020' featuring 'Chungjeong Nutrition' (청정영양) products. Includes a search bar for '사이소' (Saiso) and promotional text about online sales due to COVID-19.

양기대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법' 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을 해소하고자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



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기도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량의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왔다.

최정부/기자

이용호 의원, 국가기간조직(군인·경찰·보훈)병원 의사 정원 미달사태 만성화

공중보건의(한의사 제외)도 2017년 2,563명에서 2020년 2,44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

국가기간조직인 군, 경찰, 소방, 보훈 등 이들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이 매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료 공백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국가기간조직병원 내 의료인력 총원수를 및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원 대비 현원 90명으로 총원률 61.6%에서 2020년정원 114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총원률은 92.1%로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 또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찰병원은 2017년 69명 정원 대비 67명이 근무(총원률 97.1%)했으나 올해에는 75명 정원 대비 69명이 근무하여 92%의 총원률을 나타냈으며,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599명 정원 대비 578명이 근무하여 96.4% 총원률을 보이다 올해는 684명 정원 대비 655명이 근무하여 95.7%의 총원률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중 60% 이상이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는 2017년 2,563명에서 2018년 2,491명, 2019년 2,470명, 올해는 2,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기간조직의 의료담당하는 필수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원(편제) 대비 현원을 채우지못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들 국가기간조직 병원은 유사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

함 없는 의료인력 수급과 양질의 의료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역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상당수공중보건의를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공중보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료 공백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기간조직병원과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3개소 선정

영천시 화남면 안천, 고경면 용전, 북안면 북지구 선정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영천시 화남면 안천지구, 고경면 용전지구, 북안면 북지구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 임고면 효지구와 자양면 보현지구 2개소가 선정돼 국·도비 예산 28억원을 확보한 바 있어 과실생산 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됐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의 선정기준은 과수주산지 중 사업규모가 30ha 이상인 집단화된 지구이며 선정되면 2년에 걸쳐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 등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출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생산 거점을 육성하게 된다.

화남면 안천의 주과수는 사과이며 고경 용전은 복숭아, 북안 북지구는 포도로서 영천의 주요 대표 과실들이 골고루 육성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지난 9월 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한 유통국장 등



이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현장 점검차 영천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만희 국회의원이 최기문 영천시장과 영천시 조합장들과 함께 영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이만희 의원은 최종 선정 발표 이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갈수록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 소위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과실전문 생산단지가 영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원형/기자

장현국 의장, 추석맞이 장보기 통해 상인고충 파악 나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24일 경기북부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를 실시했다.

'제4차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구리전통시장에서 실시된 이날 방문에는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지역구 의원인 임창열 의원이 함께 했다.의원들은 먼저 점포수 388개, 상인 919명 규모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은누리 상품권으로 정육, 떡, 건어물, 과일 강정 등 명절 먹거리를 구입하고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시장 상인회에서 업종별 상인들과 안성남 구리시장, 이흥우 경기시장상권진흥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통한 지역화폐 활용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조종덕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이 10월부터 시범서비스

에 들어가게 돼 기대가 크다"며 "공공배달앱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건의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상인회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청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의원들이 장 보는 장면과 인터뷰를 홍보영상 '안전한 전통시장 장보기'로 제작해 도의회 공식 유튜브 계정의 '이끌림' 등에 게시하는 등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추석을 앞둔 도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장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장을 보며 참고영상을 제작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지역사랑도 더불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식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두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경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02)2612-2959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 독 료: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02)2060-4147



이철우도지사, 추수 현장에서 농부들과 수확의 기쁨 함께해.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들녘에서 벼베기 도우며 농업인들 격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벼 수확이 한창인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들녘을 찾아 상주시장, 도의원,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베기 작업을 도우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결실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경북도의 벼 생산량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3만5천톤보다 6.3% 정도 감소한 50만3천톤으로 예상된다.

현재 벼 수확은 추석 명절 판매용 조생종 햅쌀의 경우 수확완료 단계이며 우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만생종 벼는 10월 중·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해 11월 초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황금 들녘의 넉넉함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고 품질 쌀 생산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도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인천상수도, 국제적 수준의 수질분석능력 입증

국내외 수질분석 국제속련도시시험에서 분석력 입증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는 국내외 수질분석 속련도시시험에서 인천시의 뛰어난 수질분석 능력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속련도시 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천시 맑은물연구소는 지난 6월에는 미국에 분사를 둔 국제공인 속련도시시험기관 ERA에서 실시하는 ‘2020년 먹는물 분야 국제속련도시시험’에서도 유기인계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 등 2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9월에는 국제공인 속련도시시험기관 Merck에서 주관하는 ‘2020년 먹는물 분야 국제속련도시시험’에서 암모니아성질소 등 15항목에서 국제적 수준의 수질분석 능력이 인정받았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20년 먹는물 분야 수질분석 속련도시 시험’ 20개 전체 항목에서 모두 ‘만족’결과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1991년 이후 29년 동안 매년 적합 판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 맑은물연구소는 1991년 수질검사소로 개설된 이래로 2008년에는 국가공인 먹는물 검사기관으로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수질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맑은물연구소 수질분석 능력에 대한 대외기관으로부터의 연이은 성과는 인천시 수돗물 생산 전 과정에서 실시되는 수질분석 결과의 높은 신뢰성을 입증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분석기술 도입으로 수질검사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 수돗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고향 못가는 홀로족에 ‘명절밥상이 찾아옵니다’

성동구, 추석 홀로족 청년 1인가구 위해 ‘추석맞이 함께 밥상’ 운영

서울 성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추석맞이 함께 밥상’ 이벤트를 마련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지만 코로나19로 고향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계속되는 취업난과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1인 가구 홀로족 청년들은 추석에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다. 이에 성동구청청년지원센터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음식 도시락을 제공한다.

전과 잡채 등 명절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 100개를 준비해 오는 25일 사전 신청한 청년들에게 시간대별로 전달한다.

구 관계자는 “명절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면서 명절을 혼자 보낼 수밖에 없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도시락은 최근 코로나19로 매출감소에 힘입어 하는 쪽 도시락 청년상인들이 준비하도록 제작되거나 매출향상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신청의 열기는 뜨겁다. “추석 때 병원당직이라 분가에 못가 아쉬웠는데 추석음식을 도시락으로 먹는 건 처음이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쓸쓸히 혼자 5일을 보내야 하는 생각에 벌써 한숨만 나오지만 추석음식이라도 먹으며 마음 달래고 싶다”

“코로나 때문이 많이 답답한데 이런 행사가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다” 등 저마다의 사연을 올리며 신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접수는 24일까지 성동구청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앞서 구는 지난 22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목마른 여행의 갈증을 풀어줄 힐링 프로그램 ‘사진속 여행 특강’을 운영했다.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저자인 여행작가 안시내 씨를 초청해 작가의 세계여행 경험담을 나누고 베스트셀러 여행작가로 성장한 스토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용기와 꿈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송출됐으며 거리두기 속에 현장 참여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청년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심권 청년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가 5명이 진로·대인관계, 취업, 가족관계, 연애 고민 등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일대일 및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2명 상담을 진행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자칫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별난 직업 다 있네~

2020 온라인 강서 드림Job 챌린지

서울 강서구는 지역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의 직업 체험을 도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2020 온라인 강서드림 job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드림잡 페스티벌은 제4회 학부모 진로job과 통합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직업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온라인 개최에 아쉬움이 남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이었던 참여 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고 행사 기간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하루 동안 163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해 시간상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오는 9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8일 동안 116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중학생은 오는 25일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10월 말부터 체험할 수 있다.

#별난 크리에이터 챌린지 on'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별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준비했다.

온라인 진로체험 전용 플랫폼에 꿈꾸는 창작소 별난꿈 플랫폼 드림업 체인지 #진로 꿈타운 히어로 플래츠 등 5개 영역의 체험관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각자 학교에서 부

여받은 아이디어로 이용할 수 있고 참여한 체험 이력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5개 영역에서 모두 각 1개 이상 참여시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꿈꾸는 창작소'는 창조·공예·디자인 분야로 페이퍼아트, 미니어처, 캘리그라픽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별난꿈 플랫폼'은 창의·IT·과학·미대기술 분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재생에너지, 앱개발 직업 등이 체험 가능하다.

'히어로 플래츠'는 엔터테인먼트·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진로 꿈타운'은 진로·사회·경제 분야로 경찰관, 특수분장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드림업 체인지'는 뷰티·스포츠·생활·건강 분야로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등과 같은 직업 체험과 더불어 창업과 항공비즈니스고와 같은 특성화고 학과 체험도 가능해 진학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키트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영상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직업 체험 이외에도 1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꿈엽서 활동, 다중지능 검사, 경품 이벤트, 온라인 특별공연 등도 있어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노현숙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직업인들이 교육 기부에 나서 학생들이 미래에 나침반이 되어 주는 시간”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정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남 합평군 “호남고속철 2단계, 원안대로 합평역 경유해야”

성남 주민들, 군 중재에 단체행동 잠시 유보... “납득할만한 대안 조속히 제시하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기본계획변경으로 당초 노선에 포함돼 있던 합평역 경유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합평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변경 당시 주민협의과정에서 부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합평군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과 목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다. 전체 구간 중 기존 노선을 고속화하는 광주송정~나주 고막원 구간은 지난해 완공됐고 고막원~목포 임성리 구간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2천813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당초 원안에 포함돼 있던 합평역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적법한 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평군은 수차례에 걸친 주민 반대 의사전달과 합평역 신설 건의에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7월 전라환경영향평가 당시에도 합평역 신설 또는 KTX 정차를 재차 건의하고 이와 관련한 주민 서명도 전달했다”며 “이후 열린 기본설계 주민설명회에서는 물론 국가철도공단을 직접 방문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공단, 합평군의 이 같은 줄다리기에 합평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에는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 향우들까지 합세해 ‘합평역 신설’ 등 합평역 경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집단체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계획대로 합

평역 경유가 결국 무산된다면 합평 주민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누려온 철도교통권을 한 순간에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비옥한 농토를 제공하고도 지가하락, 농업생산성 감소, 소음 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자칫 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은 일단 지역 내 반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합평역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고등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이 국가철도공단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24일에는 이상의 군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계호·박홍근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만나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현재 군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개발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1조원에 육박하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등의 인구 유인효과를 설명하며 합평역 신설을 포함한 사업계획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이미 2010년 경부선 KTX 2단계 구간을 개통하면서 기존에 KTX가 경유하던 밀양과 구포역 경유 노선을 일부 존치시킨 사례가 있다”며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합평역 신설은 당초 기본계획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석/기자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2명 우수상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류동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응접과 및 장미 2개 종목에 1명씩 참가하여, 2명의 수용자 모두 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자동차 정비, 응접, 건축도장 등 12개 과정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직업훈련 전담 교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미장 종목에 출전한 A수용자(49세)는 2020년 경북 지방기능경기대

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자신을 지도해주신 직업훈련선생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류동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여 귀중한 성과를 낸 참가 선수들에게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이원형/기자



놀면 뭐하니? 서초와 함께하는 'AI 데이터라벨링'에서 취업하자

블록체인 칼리지 AI 칼리지 청년인턴 AI 데이터라벨링 "서초형 청년 일자리 쓰리트랙"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 구직자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직업군인 'AI 데이터라벨링'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오는 10월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전부터 블록체인 칼리지 AI칼리지 청년인턴 운영 등 4차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인재양성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사업을 선도해왔다.

이번에 구가 시행하는 'AI 데이터라벨링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서초에서 선도적 시행하는 사업으로 AI가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는 업무인 'AI 데이터라벨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단순 데이터라벨링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의료 등 전문분야 데이터셋 구축·AI학습용 데이터 유틸리티 매니징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까지 교육할 예정이며 사전에 수요 기업과 협업체계를 유지해 교육후 즉시 취업으로의 연계도 추진한다.이번 교육과정은 먼저 1차로 50명을 선발해 10월 6일부터 2주단위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회의 교육이 진행되고 2차 50명은 11~12월은 블록체인개발연구원과 함께 2회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어노테

이션 실습 및 교육, OA활용 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참여 신청은 오는 10월8일까지 인터넷이 가능하고 PC를 보유한 온라인 수강 및 재택근무 가능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구와 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이 함께 운영중인 '블록체인 칼리지' 과정은 지난 14일부터 32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중이다.블록체인의 이해, 암호학, 체인코드 개발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취업협약을 체결한 32개 기업에 취업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있던 '제1차 서초AI칼리지 청년인턴'은 총16명 청년이 12개 기업에 3개월간 인턴근무를 했다.

인턴근무 종료 후 총 12명이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이 중 최종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37.5%의 높은 전환성공률을 이룬 성과가 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초구민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했다"며 "블록체인 칼리지, AI칼리지 청년인턴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위한 더 다양한 모델을 나갈 수 있도록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대원/기자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인력 양성과정

서초구와 함께하는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4차 산업 분야에 맞춰 인공지능에 활용될 학습데이터의 이미지, 음성신호, 텍스트 등을 수집 및 가공하는 업무수행

- 교육특징**
어노테이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태깅 (Tagging), IT분야 취업을 위한 준비 및 사회인식개선교육 등 관련 수요 후 취업연계
* 월급 200만원~450, 시간제 후 재택 및 유연근무 전환 가능
- 수강자격**
데이터 어노테이션에 취업을 희망하는 20~40대 서초구민
* 이공계 및 컴퓨터 관련학과 졸업자 무관
* 온라인 수강 및 재택근무 가능(재택근무 시 PC보유 무관)
- 수강료**
서초구 지원
- 신청방법**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온라인 수강신청 후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womez55@hanmail.net
- 교육일정**
1기: 2020.10.06 ~ 10.20 (화-금, 09:00-13:00)
2기: 2020.10.06 ~ 10.20 (화-금, 14:00-18:00)
3기: 2020.10.14 ~ 10.27 (화-금, 14:00-18:00)
* 1, 3기: 오프라인 / 2기: 온라인 수업
- 교육장소 및 문의**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역 6번출구 직전 150m여거리)
02-6929-0011 (내선 1번, 교육사업부 이창권)

북항재개발사업... 부산시민과 함께 한다

'부산미래 100년 공간스케치, 시민 의견 담다'

부산시가 부산대개조를 위한 핵심 사업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4개 기관과 함께 '부산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시 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협상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22일 오전 10시에 '북항재개발사업, 부산 미래 100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부산시 공식 유튜브채널 '부산뉴스'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온라인 시민공

청회는 북항 2단계 부산시 컨소시엄 사업계획 설명 패널 토론 사전의견 및 실시간 댓글, 전화 의견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부산시는 온라인 시민공청회의 실효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먼저 공개한 후 사전의견을 수렴으로써 비대면 기반 시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조차시설 존치 반대 철도부지공원 활용 가로문화공원 주상복합건물 반대 철도시설 지하화

토지이용효율 극대화 등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출됐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해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개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광남/대기자



추석 앞두고 양평 전통시장 방문한 이재명 '지역화폐,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위한 정책'

양평 지역화폐 '양평통보' 사용해 추석 명절 물품 구매·상인·도민들과 소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강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양평지역 경기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화폐의 편의성과 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경동균 양평군수,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전통시장 상인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예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언론의 논쟁을 보면 정부재정지출 측면에서 주로 다수의 약자나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보다 대기업이나 소수 강자중심의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최근 '소용없다', '예산낭비'하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하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나누며 고항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를 건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양평군유치가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 "양평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좋은 장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총선으로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발표 후 일 평균 신규 등록 건수가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시작된 9월 18부터 23일 까지 일 평균 총선금액은 164억 원으로 6~8월 일 평균 67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상찬/기자

차준택 부평구청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민생 소통 현장방문 나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23일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기 위한 민생 소통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부평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부평광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점포를 돌아보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부평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대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또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방역 지침 캠페인 활동

을 지속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대규모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행사 대신 소규모로 분산 방문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부평구도 방역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사천시,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건 선정

사천시는 '2021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전수교육관 활용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사업'이 선정되어 총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재를 역사·문화·교육 콘텐츠로 활용해 다양한 문화재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관 활용사업'은 사천무형문화전수교육관에서 진주삼천포농악과 가산오광대를 활용한 '多才다능', '공원이 it는 금요일' 등이 있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에서 마도갈방아소리를 활용한 '춤추고 노래하는 전여잡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를 활용해 사천향교에서 전통문화 체험 캠프로 '6기예로 사천향교에서 놀아보자', 곤약향교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인 '어쩌다 선비가 당당한 선비로'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천문화재 야행사업'은 '삼천포의 밤에 빠지다'라는 테마로 선정된 사업으로 각산봉화대, 대방진굴항, 무형문화재와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활용해 야간에 특색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저변확대에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의 질 높은 여가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자원화센터 현장행정... "격무에도 최선 다해 감사"

지난 24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시설개선 공사 중인 김포시자원화센터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현장행정에서 "김포시의 가장 열악한 곳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자원화센터 직원들"이며 "격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어 정말로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정 시장은 이날 지난 8월 20일 현장행정 당시 쓰레기 반입 저장조 공사에 대한 특별지시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김포시자원화센터는 김포환경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과 음식물쓰레기

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소각시설 저장조의 적정 용량은 700톤 정도인데 현장행정 당시 무려 1,700톤이 적체돼 있어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컸었다.당시 정 시장은 특단의 대책강구를 지시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특별대책을 세워 약 1개월간의 노력 끝에 지난 23일 저장조를 모두 비운 수 있었다.김포시는 저장조를 모두 비운 뒤 현재 벽면 균열 방수공사, 침출수 제거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중구, 쓰레기 대란 맞선 쓰레기 전쟁

모든 쓰레기 일괄 수거, 무단투기
계도·단속인력은 2배로

중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쓰레기 싸움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재활용품 수출길이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2025년으로 임박해 음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10%씩 생활폐기물을 감량해야 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쓰레기 현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악취·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활학동 중앙시장 둔부산물 골목 악취 제거다.

골목, 순대 등 국내 둔부산물 70% 이상이 생산되는 활학동 둔부산물 골목은 가공작업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해 해마다 EM살포와 하수로 준설, 상인들의 자발적인 물청소가 이뤄졌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소형트럭을 구입해 물탱크를 장착하고 고압살수기로 주2회 물청소, 월1회 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찌든때가 씻겨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인근 상인들은 청소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악취제거라는 오랜 숙원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쓰레기 수거체계도 대폭 변경했다.기존에는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만 수거했다.

그러나보니 무단투기 및 잔재쓰레기 등은 길에 고스란히 남아 낯시간대 거리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잦았다.이에 구는 잔재쓰레기 등 모든 쓰레기 수거를 저녁시간 일괄 수거 체제로 전환하고 무단투기 단속 인력을 2배로 증원에 계도·단속을 강화



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진 대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경영안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일괄수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 것이다.

동네 골목길 청소는 가로 공무원 100여명이 맡았다.

주로 간선도로변과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 위주로 진행되던 청소를, 낙후한 주택가 골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전시간대에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청소도 병행하게 된다.공무원들의 작업방식을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이면도로의 잔재쓰레기는 없애고 보이지 않는 골목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관리가 가능해진다.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각 동별 4명 주민들로 구성된 총 60명 클린코디의 활동이 눈에 띈다.

이들은 취약지역이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 설치 건의 및 무단투기 경고관 설치,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 배포 등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각 동네의 문제점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마을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러한 구의 노력과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월평균 5750여톤에 달하던 생활폐기물량이 올해 현재 월평균 4820여톤으로 줄었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지속가능한 청소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서양호 중구청장은 "청소, 주차, 공원관리 등 주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을 굽어줄 수 있는 주민체감형 생활구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강남구, 강남~선릉역 일대 '다단계·방판업체' 특별점검 총력전

9.24·25,28 추가 확산 방지 위한 선제
조치...현장단속반 10명 포함 직원
118명 집중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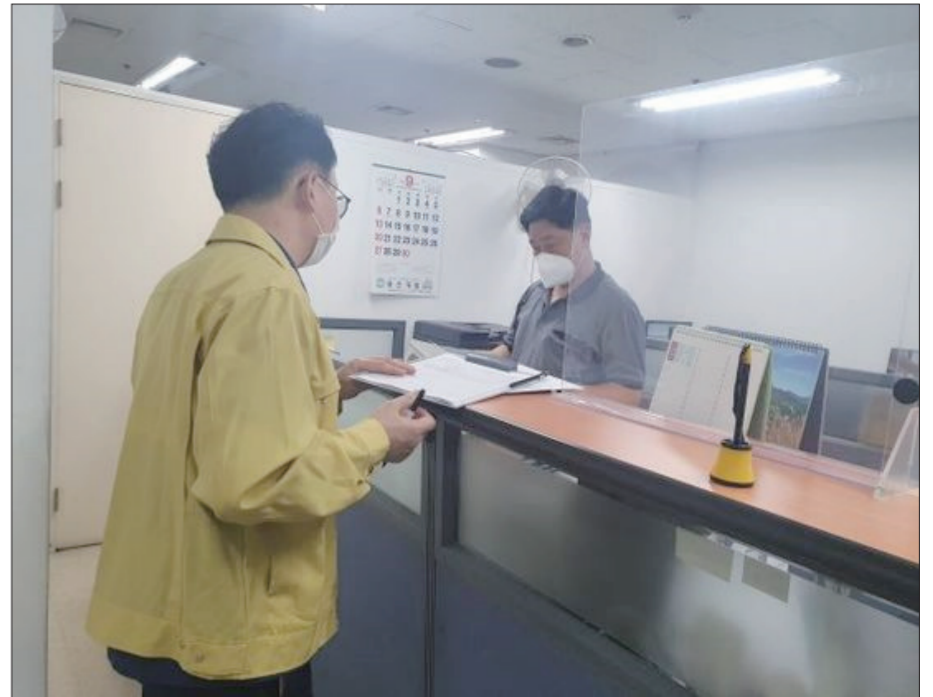
'기본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24~25일 28일 직원 118명의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테헤란로 주변 건물에 소재한 다단계·후원방문·방판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일대의 코로나19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2개조가 24~25일 28일 11~오후 6시에 건물 각 층을 돌며 점검을 벌인다.

점검을 통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또는 사업자는 발견 즉시 현장단속반에 인계된다.

현장단속반은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살펴 확인 즉시 해산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시 강남·수서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만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일대 모든 사업장에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특수판매업체

가 주최한 모임이나, 관련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는 원천 금지돼있다"며 "9월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방문한 구민께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예천군, 추석맞이 '취약지역 특별 방역소독의 날' 운영

감염병 예방 위한 읍·면
일제방역 소독의 날 지정 운영

예천군은 25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추석 전·후 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매개체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석전후 취약지역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5일을 읍·면 일제방역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경북 클린&안심 방역 캠페인'과 병행해 방역 취약지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을 하는 등 코로나19,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공용기, 웅덩이 등 물이 고인 장소를 비롯한 취약지역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집주변 풀숲을 제거하는 등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방역소독, 사전 위생 점검을 함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읍·면 일제방역소독의 날에는 공무원, 기관 단체, 전 군민이 모두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감염병 예방 최고 백신



인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아산시,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순차적 단속 실시

아산시는 지난 6월부터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조사대상 건축물 중 약 14.8%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시정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불법 증축과 대수선이 가장 많으며 이는 건축주가 불법 임대수익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위법 행위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추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시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 또한 받을 수 없다.

시는 위반 건축물의 심각성을 전파시키고 점검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하반기 지도·점검부터는 건축지도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10월 초부터 불법 쪼개기 등에 대한 2차 단속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가, 신도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조사·단속을 진행할 것이다"며 "단속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는 건축물대장을 사전에 확인해 시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339-8822

서울시 북촌문화센터, 추석맞이 '보름달 등불 만들기' 비대면 체험 운영

선착순 100명에게 나만의 달맞이 등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보름달 등불 만들기' 꾸러미 발송

서울시 북촌문화센터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명월위축, 달아달아 밝은 달아'를 진행한다. 예로부터 추석은 일 년 중 가장 밝고 둥근 달이 뜨는 명절로 '달빛이 촛불을 대신할 만큼 밝다'는 뜻의 명월위축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달맞이를 하곤 했다.

북촌문화센터는 집안에서도 나만의 달맞이를 할 수 있도록 선착순 100명에게 한지등갓, 한지장식 등을 담은 '보름달 등불 만들기' 체험 꾸러미를 발송한다. 이번 체험 꾸러미는 북촌에 소재한 한지공방과 협업으로 제작됐다.

'보름달 등불 만들기' : '보름달 등불 만들기'는 한지등갓에 한지로 만든 달토끼, 송편, 곡식 등 추석 상징물을 오려붙여 나만의 보름달 등불을 꾸며 볼 수 있다.

나만의 보름달 등불을 만들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보자.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와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북촌문화센터



로 하면 된다.

앞서 북촌문화센터는 여름맞이 '전통향낭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무궁화 방향기 만들기', '전통책 만들기' 체험 및 온라인 어린이 한옥캠프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올

해 추석 연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는 만큼,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작은 즐거움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광명사거리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골목상권 살리기 힘 모아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골목상권 조직화사업 추진

광명시는 광명사거리 음식문화거리 상인회와 함께 지난 21일 광명사거리 음식문화의 거리에서 청사초롱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박승원 광명시장,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광명사거리 음식문화거리 상인회는 지난 4월 자영업지원센터의 경기도 조직화 사업에 선정되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40여명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포토존, 방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불 꺼진 상점가와 손님이 없어서 개시도 못하고 들어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광명사랑화폐를 확대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걷는 한걸음의 가치



를 소중히 생각하며 오늘 청사초롱의 점등처럼 늘 밝은 광명사거리 음식문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자영업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구 도심 골목상권이 매우 위축되어 있

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에서 8월말 현재 1500여개의 자영업자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광명시 자영업자의 10%에 달한다"며 "자영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금천구가 청년들의 일상을 응원한다

주거, 건강, 노동 등 청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9월부터 지역 청년활동공간인 청춘벨딩을 통해 지역청년의 생활개선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와 코로나19로 활동반경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거, 건강,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생활여건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춘벨딩에서는 지역청년들이 주거 마련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 목요일 '전문적 1:1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계약 상담과 함께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금천청년주거상담'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또, 청춘벨딩 내 청년마을공방을 설치하고 1인 가구가 구비하기 어려운 생활 공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마을공방에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공구세트부터 직소기, 사다리, 삼 등 다양한 공구들이 마련돼 있다.

공구는 1회 5개 품목까지 대여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춘벨딩을 방문하면 된다. 청년마을공방에서는 공구대여 서비스와 함께 코로나19로 실내생활 빈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DIY 인테리어 소가구 제작'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청춘벨딩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불안을 겪는 문화예술분야 청년프리랜서도 지원한다.

지난 7월 총 80여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최종 17명을 선발했다. 9월부터 청년사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업무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청

년들의 활력을 높이고 1인 가구 청년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청년건강증진사업 마음약국 청년참여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온택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은 사전에 청춘벨딩 SNS를 통한 참여 신청으로 킷트를 제공받아, 각자의 거주공간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강 상식과 분야별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청춘벨딩 유튜브 라이브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생활개선 프로젝트는 지난해 금천구 청년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여건에 타격을 입은 청년들의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실시간도시데이터서비스'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모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관악 실시간도시데이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제공한다.

구는 서울시, 기상청,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관리되는 86종의 실시간 생활·안전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스톱 웹서비스를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뉴스로 알 수 있었던 관내 화재나 응급상황 등을 '스마트관악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폭우 시 도립천 수위 강우량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재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수돗물 수질 상태 미세먼지 농도 오존·방사선 농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센터 등 관내 7개 분야 49종의 시설 위치정보를 온라인 GIS지도에 담아 제공하며 관내 복지시설부터 행사 축제장까지 모든 시설정보를 웹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구변동 추이 동별

인구 밀도 외국인 인구·국적 분포 예산 등 구정 현황데이터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시각화했고 공약실천현황, 구정장제 문서 등 더욱 투명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담았다.

관악구의 스마트한 변화를 보여주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

그간 관악구가 추진해온 최신 스마트사업 Top10을 선정해 관악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최신 데이터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며 최근 다양해진 인터넷 이용 환경을 고려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관악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스마트관악'을 검색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를 활용해 접속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로 국가 미래 동력 산업의 이목이 데이터로 집약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리 구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의 생활을 바꾸고 도움을 주는 '스마트도시 관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스마트관악 도시데이터서비스 오픈!!

관악구민의 **안전·생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세요

http://smart.gwanak.go.kr

검색창 : 스마트관악



대구 세트렘 대원 칸타빌

광명문화재단, 2020 광명역사인물 및 문화자원 창작 희곡 공모전

『그리움이 거기 있었네』개최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임철빈)은 광명시 최초,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2020 광명역사인물 및 문화자원 창작 희곡 공모전『그리움이 거기 있었네』를 추진한다.

광명의 그리움이 담긴 인문·역사 자원을 활용한 희곡 공모전을 통해 광명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광명시민을 포함한 전국 단위 일반인들에게 희곡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대상은 전국 단위 일반인으로서, 대학생 이상 국내 신인 및 기성작가도 포함된다. 예심 접수기간은 9월 25일 금요일 09시부터 11월 30일 월요일 18시까지 광명시 인문·역사 자원을 주제로 한 창작 희곡을 이메일 (orism@gmcf.or.kr)로 접수하면 된다.창작 희곡 작품 제출품수는 1인 1편이고, 출품신청서는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mcf.or.kr)-열린광장-공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창작 희곡 공모 작품은 전문가 예심심사를 통해 6편의 작품이 선정되며 광명시인 본심심사를 통해 6편의 작품에 한해 당선자 순위 선정이 이뤄진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을,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우수

상 3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당선작은 본심 심사후 12월 11일 금요일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은 광명문화재단 오리서원(02-2621-8880)으로 하면 된다.

최정부.전순희/기자



2020 광명역사인물 및 문화자원 창작 희곡 공모
“그리움이 거기 있었네”

공모개요
 참여대상: 일반인(대학생 이상, 국내 신인 및 기성 작가)
 공모부문: 광명시 인문·역사 자원(오리서원, 기행도, 민화책, 광명동굴 등 활용 60분 내외 공연 가능한 창작 희곡)
 제출품수: 1인 1편 (용모작품은 A4용지에 11포인트, 용량명주제, 20장 내외)
 제출서류: 출품신청서 및 작품개요 / 희곡 공모 대본 / 저작권 사용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자취를 이음 허락 동의서
 가산점: 광명시민 100점 만점 중 10점의 예심 가산점 부여(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 * 가산점은 원소·시작·발행 기록 1년 미만부터 주민등록상 광명시 거주자만 부여하며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이력 전년도부터 적용
 접수방법: (재)광명문화재단 오리서원 이메일(orism@gmcf.or.kr) * 자세한 내용은 (재)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mcf.or.kr)-열린광장-공모에서 자세히 보거나 문의
 접수기간: 2020년 9월 25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최종발표: 2020년 12월 11일(금)
 주최 주관: (재)광명문화재단
 문의: (재)광명문화재단 오리서원(02-2621-8880)

시상내역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기타사항
 * 최종 수상자에 대한 제재, 공표, 공연권, 전시, 배포 등에 이용권은 (재)광명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 저작권이 있는 광명시 인문·역사 자원의 광명시 저작권(저작권) 상속권자의 허락 없이 희곡 창작을 위한 작품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원 기관과 협찬사에서 확인을 받은 사진·영상 등 실사·영상·오디오·영상물은 제공받은 채권은 제공된 금액이며, 상금은 제공금액 후 공모수상자 본인에게 계좌 이체 지급합니다.
 * 당선된 작품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인문·역사 자원을 활용한 희곡 공모전을 통해 전국 단위 일반인들에게 희곡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기행도 문화재단, 오리서원

2020년 의정부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4일 공식 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기 위한 '2020년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했다.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4명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진행된 적극행정 실천 다짐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했다.이날 참여한 직원 대표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정훈 주무관, 한주희 주무관, 김종명 팀장, 이유미 주무관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결의대회 대신 최소 인원이 참석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으로 진행됐으며 전 직원 실천 다짐 결의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의정부시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 포어 손팻말 홍보와 함께 '직원 소통 감담회'를 실시해 민원부서 및 사업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적극행정 우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모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라며 "적극행정 공적

문화를 정착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이번 추석 명절엔 '서구TV'와 함께 집콕 챌린지

3가지 이벤트 패키지 참여하고 경품을 내 품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엔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서구TV'를 활용해 '추석맞이 비대면 집콕 이벤트 3가지 패키지'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구민 누구나 손쉽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파하고 나섰기 때문. 우선 서구는 지난 21일 서구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의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만든 영상을 발행했으며 이 영상은 발행 4일 만에 8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영상 속 음악에 맞춰 20초 버전의 짧은 '집콕 안무'를 구성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하고 SNS를 통해 확산하는 '우리 서구 집콕 챌린지' 이벤트 1탄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이벤트 2탄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손주들의 '사랑 가득' 영상 편지나 가족사진을 본인

계정의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3탄은 서구 캐릭터 '서동이'가 추석 연휴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영상을 보고 N행시 형태의 댓글을 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

3가지 패키지 이벤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집에 머물며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각각 푸짐한 경품이 전달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구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추석 명절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데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구민 여러분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화상통화나 SNS로 소식을 전하며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 준비한 추석 맞이 이벤트 패키지를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기고 함께 참여하면서 건강과 안전을 먼저 챙기는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중남/기자



서구TV 추석 이벤트 패키지!!

“을 추석은 마음만 가까이”
서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구민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서구의 모든 SNS(페이스북, 유튜브, 서구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1. 집콕 안무 챌린지
구민의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만든 영상에 맞춰 20초 버전의 짧은 '집콕 안무'를 구성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하고 SNS를 통해 확산하는 '우리 서구 집콕 챌린지' 이벤트 1탄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2.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사랑 가득 영상 편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손주들의 '사랑 가득' 영상 편지나 가족사진을 본인계정의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을 추석은 마음만 가까이"
서구 캐릭터 '서동이'가 추석 연휴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영상을 보고 N행시 형태의 댓글을 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구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추석 명절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데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구민 여러분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화상통화나 SNS로 소식을 전하며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 준비한 추석 맞이 이벤트 패키지를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기고 함께 참여하면서 건강과 안전을 먼저 챙기는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중남/기자

강동구, 일상에서 누리는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 1호점 개소

성내동에 285㎡ 규모, 책과 차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강동구가 구민들이 일상에서 차한 잔의 여유와 독서를 통한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 1호점을 조성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개소식을 연다.

'다독다독'은 이름처럼 책과 차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강동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엄숙한 분위기의 기존 도서관과 달리, 주민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1호점은 285.8㎡ 규모로 카페테리아, 벽면서가, 독서·휴식 테이블 공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1인실, 동아리 활동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한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졌다.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신간과 스테디셀러 등 도서 2,500여 권을 비치하고 특정 주제의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북큐레이션'을 통해 주민에게 삶의 가치와 지유, 행복을 느끼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낭독회, 영어원서 읽기,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인구 55만 시대를 앞두고 주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차별 생활 인프라인 '북카페 도서관' 조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성내동 1호점을 시작으로 천호동 고분다리전통시장 2호점, 암사동 3호점을 조성 중이며 2022년까지 강동구 곳곳에 다독다독 10개소를 만들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의 심벌마크는 영양교육지원청의 교육지표인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해달뫼 인재 육성에서 "해·달·뫼"의 모양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지구를 상징하는 원형은 세계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과 의지를 나타내고 해를 상징하는 Red, 달을 상징하는 Blue, 뫼를 상징하는 Green의 3색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 학생·교직원·학부모의 화합, 꿈과 희망의 창의적인 교육이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실, 신뢰가 있는 학교, 행복하고 감동하는 교육의 실천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부산시,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 유치에 총력

‘글로벌 치의학 산업 중심도시, 부산’ 육성에 박차

부산시는 9월 23일 발의된 ‘치의학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글로벌 치의학 산업 중심도시, 부산육성을 위해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 유치에 적극 발 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 치의학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 유치를 위한 산·학·연·병·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뛰어난 치의학 인프라와 산업·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치의학 산업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발의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치의학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학 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치의학 전문인력양성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가 위치하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관련 대학, 기계·재료·바이오학과 등 전문인재를 보유한 점 등 강점을 강조해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 대행은 “치과 산업은 기술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지만 치의학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정책지원 기반



은 없는 실정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치의학, 치과 의료산업 연구를 위한 중심축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민의료 향상과 치의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치의학 연구와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중심 연구기관인 치의학산업연구원의 부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비대면 추석 대비, 어르신 돌봄 공백 적극 해소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에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심리방역 물품과 건강 특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명절 인구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고향방문 자제’, ‘추석연휴 집에서 보내기’를 권고하고 있어 추석연휴에도 가족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9월 24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440명을 대상으로 ‘건강식이 꾸러미’와 ‘정서지원 심리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추석연휴 집중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건강식이 꾸러미는 추석명절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매일 섭취할 식물성 단백질 셰이크, 떡국떡, 사골곰탕으로 ‘정서지원 심리방역 물품’은 녹색차연물을 경험하고 만지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제거하고 향균

효과가 있는 토끼어리 만들기 세트와 치매예방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에 좋은 컬러링북 등으로 구성했다. 심리방역 물품을 전달하면서 추석연휴 가족 및 친지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돌봄 지원대상자와 안부확인 필요자를 선별해 연휴 기간 가정방문 및 유선을 통해 안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실시할 예정이다.”



송인용/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바이러스 미리 막는다

국가관리 식물 바이러스 분포조사 및 관리 매뉴얼 개발 나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농작물 바이러스 병해에 대해 경남지역 국가관리 바이러스 및 농작물 주요 바이러스 분포조사를 통한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진단 매뉴얼 개발로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는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병원균은 곰팡이로 약 70% 이상이며 세균과 바이러스는 전체 병의 10% 정도이다. 그러나 식물바이러스는 세균, 곰팡이병과 달리 방제 약제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식물병으로 바이러스의 발병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해 바이러스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식물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은 구조가 단순하고 스스로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감염시켜 증식한다.

즙액, 토양, 종자, 곤충 등을 통해 전염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산량 및 품질 저하와 함께 품종퇴화 등의 농업생산성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및 국가간 교역량 증가로 인해 잠재 바이러스가 발현되거나 외래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멜론에서 박과진딧물매개체로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전국에 있는 멜론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2015년 복숭아에서 검역금지급 바이러스

스인 자두곰보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전국의 핵과류 농가에 확산되었는지 매년 추적조사 중에 있다.

이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박경미 농업연구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블루베리붉은반점바이러스 등 국가관리 바이러스 12종에 대해 연도별·지역별 정밀 분포 조사와 주요 농작물 문제 및 신규 바이러스 발생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바이러스 관리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발생 시기, 생태, 기주범위 등 상관관계를 분석해 바이러스병의 신속 정확한 진단과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농가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광/기자

알프스 하동에도 영화관 생겼다

하동군, 읍내리 152석 규모 시연회... 일반·3D영화 상영 군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영화관이 없어서 그동안 인근 진주·광양 등지로 원정 영화를 보러 다녔던 하동군에도 150석 규모의 영화관이 들어섰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 하동읍 읍내리 신축 현장에서 알프스 하동 영화관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알프스 하동 영화관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작은 영화관으로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이다.

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12월 착공한 알프스 하동 영화관은 지상 5층 연면적 2399㎡에 152석 규모로 건립돼 일반영화와 3D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 커뮤니티실, 매점,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이날 시연회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해 이정훈 도의원, 군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일반

영화 및 3D영화 시연, 영화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내부 행사로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실시했으며 군민 개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인근 도시로 나가지 않고서도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문화 생산과 향유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밀양시, 젠더폭력 추방주간 맞아 ‘디지털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실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안전한 밀양’ 조성

밀양시는 23일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주관으로 여성단체 회원,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젠더폭력 추방주간 ‘디지털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은 젠더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특정 성에 대한 신체·정신적·성적 젠더폭력과 최근 폭력의 디지털화 현상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안전한 밀양’이라는 슬로건으로 내일동 관아 앞,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젠더·디지털폭력 예방 거리 피케팅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허혜선 밀양시성가족상담소장은 “최근 각종 폭력이 파급력이 큰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여성친화도시 경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민관경 합동 점검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영남대역 일대에서 점검 및 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경산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24일 영남대역 일대에서 불법 촬영 민관경 합동 점검 및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단과 로템성폭력상담소, 폭력상담시설 협의체, 영남대역 관계자, 경산경찰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역 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라” 이벤트, 피해 예방·신고 요령 홍보 전단지 배부, 불법촬영 경각심 고취를 위한 포토타입 등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

경산시는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부서 담당자, 화장실 관리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점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불법촬영 점검 지원을 위해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탐지장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점점 늘

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대구·경북이 함께하는 SoSo 페스티벌 개최

추석맞이 '2020 도농상생 한우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행사' 열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추석명절 보내기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스타디움 태극광장에서 '2020년 도농상생 추석맞이 한우고기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와 농업 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고통방문을 자제 권고에 따라 고향방문을 선물로 대신하는 분위기에 맞춰 명절선물 선호도 1위인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경북지역의 우수한 한우를 홍보하고 도농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매되는 한우고기는 대구·경북 6개 지역축협과 한우협회가 참여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다짐육, 부산물 등을 시중가보다 최소 3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한우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한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임원 단들이 모듬삼 키트 등 경북 농산물을 함께 판매해 행사의 의미가 더욱 깊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드라이브 스루로만 운영되며 일반 입장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대구·경북 도시민들이 대기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드라이브스루로 참여할 수 있는 사다리타기 등 간단한 기념품 행사와 한우 떡갈비 시식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24일 25일 양일간 한우 20만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자동차극장 입장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태풍 피해로 농축수산물 추석 선물보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우리 한우선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적 한우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석명절을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하고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로 한우고기 특판 행사를 준비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 친지들과 몸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이원형/기자



오도창 영양군수,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통한 민생점검 나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는 추석에 맞아 전통5일장인 24일 영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차례용품 구입하고 지역경제 민심을 살폈다.

영양군에서는 매년 명절 시행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각 부서 기관별로 지난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나누어 추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해당 기간 중 전통5일장인 지난 24일 영양시장을 방문해 점포를 둘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차례용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편 영양시장은 영양군과 영양시장상인회가 합심한 '추석대비 특별

방역체계'를 통해 방역, 환경정비를 시행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영양시장에서는 작년 7월 시행된 '영양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고객들을 위한 관내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오도창 군수는 "힘든 시기를 잘 견뎌 내주고 있는 영양시장 상인들에 감사드리며 영양군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상인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원형/기자

성주에도 '바나나, 파파야'가 열렸어요~~

성주참외체험형 테마공원 내 원예힐링관 스마트 팜 기술로 시험재배 성공

성주군은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아열대 과수인 바나나, 파파야의 시험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성주에서 처음 재배된 바나나는 지난해 12월 안동에서 어린묘목을 수령해 재배한 이래 9월 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 11월 초순 90kg을 수확할 예정이다.

파파야는 7~8년 된 묘목을 식재해 재배한 결과 수확량은 3그루 1.3kg에 달한다.



바나나는 열대에서 아열대의 10℃ 이상 되는 지방에서 재배되며 심은 후 1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1980년대부터 제주도, 경남 산청, 경북 포항, 강원 삼척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칼로리가 가장 높고 당질이 많아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 카로틴,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작년 12월 재배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 온실인 '원예힐링관'을 설치해 4계절 지친 몸을 치유하는 즉육기 10대를 구비했으며 아열대 수목인 망고 용과 등 40여종과 초화류

20여종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서성교 소장은 "참외의 고장 성주는 전국을 넘어 세계적 과일의 참외를 생산하고 있지만, 참외 보완작물로서 바나나, 망고 등 아열대 작목 육성 보급과 체험형 치유농업에도 힘써 농가의 부가

양현석/기자

안동 낙동강변 핑크물리 개화 시작

핑크물리 그라스원, '핑크로 물들 길'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안동시는 재작년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우편 집중국 앞 낙동강변 둔지에 3,000㎡ 규모의 핑크물리 그라스원을 조성했다.

지난해 SNS 상에서 안동의 핫플

레이스로 떠오른 핑크물리 그라스원에는 핑크물리 4만 본이 식재됐으며 현재 분홍빛 꽃이삭을 피우기 시작했다. 9월 말경 만개해 11월 초까지 분홍물결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동시는 개화에 맞춰 핑크물리 그라스원 일원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지난해에 이어 '핑크로 물들 길'이라는 부제로 감성적인 가랜드와 조

형물 등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낭만적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진 명소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에 분홍빛 물결을 감상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핑크물리를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경주시, 전통시장·상점가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펼쳐

추석맞이 장보기는 정감있고 안전한 전통시장에서...

경주시는 23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장보기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장보기 지원과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시키기 위해 21~29일까지를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경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장·일정 별로 인원을 분산해 삼삼오오 장보기 방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 시에서는 주 1회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전통시장 전역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발열체크를 시행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최선의 방역인 마스크 1만개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배부하고 시민과 상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의무적 착용'을 집중 지도했다.

아울러 경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 가스, 전기,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는 코로



나19 확산으로 어느 해보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고충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주페이 추가발행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안동시, 코로나로 위축된 전통시장 살리기 나섰다

안동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9월 22일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어려운 살림살이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소인원만 참석해 장보기를 실시했다. 관영세 시장은 구석구석을 돌며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문어, 과일 등 제수용품과 추석 선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계도활동도 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안동전통시장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1억원으로 산정하고 시 산하 공무원이 출선

수범해 5급이상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 구매 장보기행사에 나섰다. 안동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안동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행사를 통해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나주시,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6건 선정

지난 해 이어 응모사업 6건 모두 선정... 사업비

11억3000만원 확보 쾌거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지역문화재 활용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문화재청 주관 '2021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공모에서 총 6건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선정된 사업은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문화재 야생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5개 사업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건 등 총 6건이다.

시는 지난 해 공모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전체 응모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

했다.10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가 있다.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는 3년 연속 우수사업 선정을 통한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프로그램이다.나주향교를 전통문화 전승 공간으로 활용해 아동과 청년, 성인을 아우르는 인성·창의·예절·지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나주 읍성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문화재야생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금성별곡, 별미 별미 달미성'을 부제로 총 8종의 야간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도면 소재 천년고찰 불회사에서 진행되는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은 '호랑이는 석상상을 등에 업고'를 주제로 전통 산사와 관련한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남과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명사와 함께하는 고택스테이'는 고택·



종갓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재 활용사업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점을 감안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내년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응모한 모든 사업이 선정돼 전년목사고를 나주의 역사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사업별 전문인력 발굴에 따른 고용창출과 관광사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때그시절을 아십니까?강진극장통길에서 청춘 인증샷

전남 강진군의 극장통길이 새로운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로상가는 지난해 선정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대거리로 탈바꿈한 극장통길 일원에 근대의상 무료체험장, 근대거리 포토존, 관광객 상품권 증정행사, SNS 업로드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해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근대의상 무료체험장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근대의상과 추억의 교복을 무료로 입어 볼 수 있으며 극장통길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색 문화체험 장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포토존은 강진의 옛 점포와 추억의 물건들로 꾸며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낭만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공간이 되고 있다.또한 관광객에게는 5천 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와 극장통길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즉석에서 5천 원 상당의 메탈포토를 인화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이승욱 군수는 "청춘 극장통길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방문객 증대를 이끄는 이색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우리나라에 연초록으로 넘실대는 멜론마을이?

곡성군,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멜론마을 조성 착수

전남 곡성군이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3년차 목표 중 하나인 멜론마을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멜론마을 조성은 멜론 주산지인 대평 2구 금예마을을 곡성멜론을 상징하는 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곡성관광의 허브인 곡성역, 선진강기차마을,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 멜론마을을 하나의 관광 및 체험코스로 연결해 경관조성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곡성읍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롤리 버스와

향후 연계한다는 생각으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멜론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 건립 추진에 앞서 차별화된 마을 경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멜론마을 110가구 우편함 및 명패 달기, 멜론조형 파고라 설치, 멜론마을 분리수거장 정비 및 디자인 펜스 설치, 마을회관 사진게시판 리모델링, 멜론마을 입구 외벽 환경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체험센터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통일감 있게 디자인했다고 한다.특히 준비 단계부터 멜론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 및 의견교환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금예마을 농민은 1982년부터 멜론

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곡성멜론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남다르다.

곡성군은 곡성멜론을 형상화한 우편함과 명패가 멜론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와 자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멜론마을 입구 파고라는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쉴 곳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곡성멜론을 떠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금예마을을 멜론마을로 탈바꿈시켜 관광마을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와 함께 우리 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수상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평가한2020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과 생산부터 유통사업까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번 연차평가는 2019년 수행한 FTA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 단위 18개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 예산 집행실적, 통합마케팅 실적, 농가수취가 제고 등 전반적인 사업실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전문가의 전문평가



단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금번 연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19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남원 과수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FTA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산시설개선 및 남원시조합공

동사업법인과 협조체제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마케팅을 통한 판매·유통확보 등 과수 전반적인 사업발전을 도모해 남원과수산업 경쟁력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과실을 생산, 과수 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이번 추석 명절엔 '서구TV'와 함께 집콕 챌린지

3가지 이벤트 패키지 참여하고 경품을 내 품에~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의 분기점이 될 이번 추석명절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목포 관광지 모바일 앱으로 안부 인사를 대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추석명절만큼은 이동을 자제하고 목포시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들에게 변화된 목포 소식도 알리고 안부 인사도 전하는 취지이다.

모바일 앱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항구포차, 스카이워크, 근대역사관, 시화골목 등 10개 주요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시는 모바일 앱을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무료 배포해 시민 누구나 다운받아 지인들에게 추석 안부 인사를 대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고유명절을 맞아 추석인사와 더불어 우리시 관광자원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잠재적 관광수요자를 창출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날로 발전하는 관광자원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을 수립해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진도군, 울돌목 일원에 가족호텔 건립...460억 투자협약 체결

190실 객실, 인피니티풀장, 레스토랑 갖춘 가족호텔 건립

진도군이 울돌목 해역이 내려다 보이는 진도대교 녹진 관광지에 가족호텔 건립을 위해 (주)진도관광레저산업개발과 총 4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주)진도관광레저산업개발 백형진 대표, 이승필 본부장,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약식으로 진행됐다.

호텔 뷰 1597 건립 사업은 대지면적 5,459㎡에 연면적 17,789㎡ 13층 규모로 객실 규모는 190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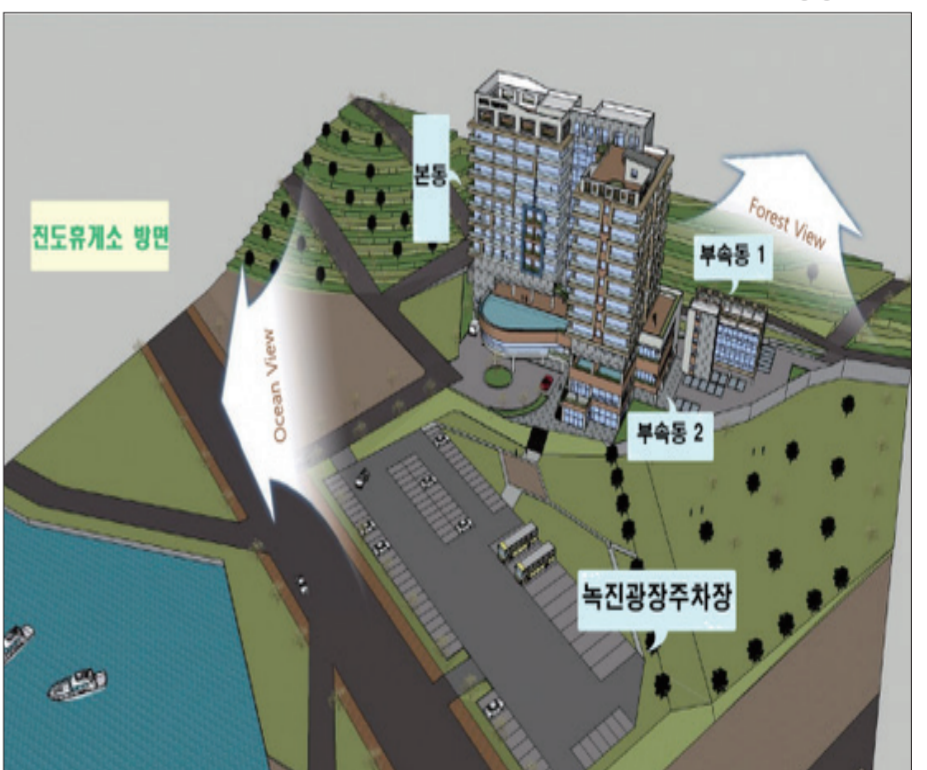
특히 인피니티풀장, 연회장, 뷔페 레스토랑, 키즈카페, 남녀 사우나, 상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어려운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실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진도군은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형진 대표는 "울돌목 해역이 흰

히 내려다 보이는 녹진 관광지에 역사와 휴양이 결합된 복합가족호텔 호텔 뷰 1597를 완공해 향후 진도군의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호텔 뷰 1597이 건립되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동서연결철도 추진 타당성 충분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동서간 교류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전북이 끌고 갈'자는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하는 동서연결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상업 박사는 정부주도의 국토정책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형평성, 협력적 경제사회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편의와 저성장기조에 맞춰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동서화합',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김천간 철도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0여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들이 변함에 따라 이 노선의 영향권에 있는 인구는 700만명, 그리고 경제·여가활동을 위한 통행

은 2020년 기준 하루 약 1,800만 통행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업 박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철도망 전략은 단절구간 해소와 철도 네트워크의 효

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만금-김천간 철도를 통해 동서로 연결하는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경부·호남선과 연계함으로써 사통팔달의 전국 철도망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만금-김천간 철도 개통으로 전북에서 부산행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물류수송 등의 경제적 연대효과가 기대되며 국제공항 및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대중국 무역기지로써 향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서해안권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무주덕유산국립공원 등 전북주요관광자원과 영남권을 연계하는 인적·물적 대량수송수단이 확보됨으로써 영호남 관광벨트 구성과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져 동서화합, 영호남 상생발전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중추도시인 전주·새만금권역과 경북의 중추도시인 김천·대구권역을 연결하고 나아가 부산·울산권과의 여객과 화물을 효율적으로 수송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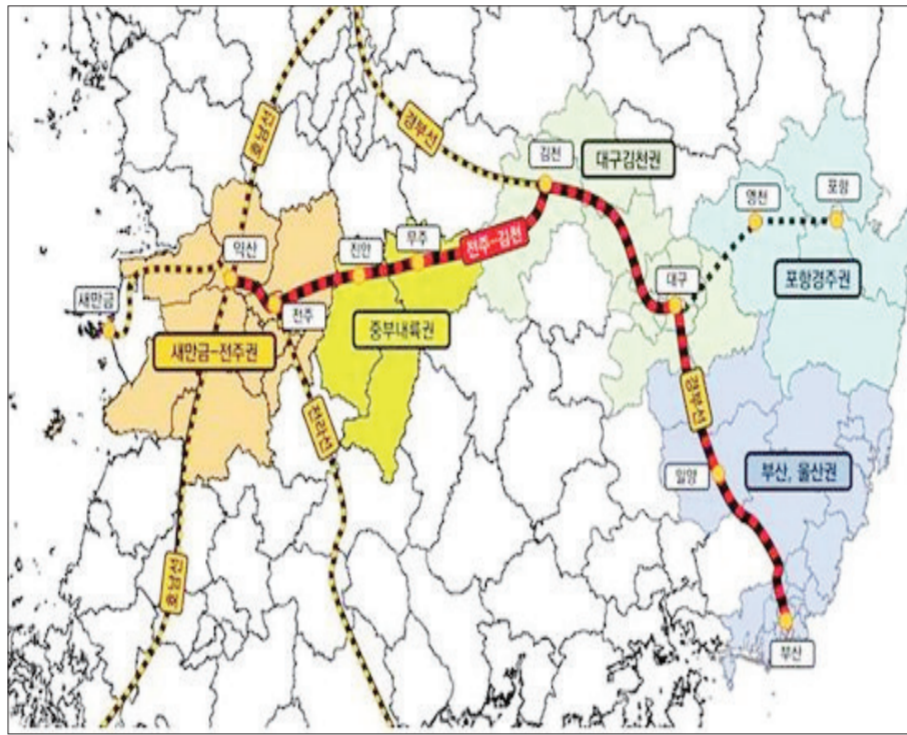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을 위한 내륙간 철도 Missing Link 해소를 통한 효율적 철도네트워크 구축 국제공항, 신항만과 연계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경제철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잠재적 수요 확보 측면에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시행타당성이 충분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부산행 열차의 출발역이 되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 온 동서간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며 단절된 철도망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산업·경제·관광·무역분야 신성장동력의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김승일/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청와대와 정치권에 섬진강댐 피해지역 보상 촉구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22일 행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문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섬진강댐 피해지역 7개 시군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며 정부와 당 차원의 입장표명과 가시적인 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관련부처와 기관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에 황 군수는 7개 시군의 입장을 담아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에 전달, 정부와 당 차원에서 각 부처간 협력을 도모해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 지난 21일 한노위 임이자, 안호영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두 의원은 "섬진강댐 관련 주민피해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와대와 감사원을 방문해 청와대에는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조속한 후속대책을, 감사원 측에는 신속한 감사와 처분조치 등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2일에도 황 군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하천제방과 합강지점 문제점 개선 요구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 추석 전 가시적인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현재 7개 시군 지자체 입장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공으로 규정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해 피해보상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있었던 환경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조 장관은 7개 시군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동의하면서도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올 추석에도 생계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지자체장들이 나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피해보상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로 여전히 자신들의 일터와 생활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하루 빨리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신안군 개체굴 시범양식, “정부 포용성장 모델”제시

개체굴 산업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외화수입원 견인역할 기대

신안군은 지난 22일 자은면 백산리 개체굴 시범양식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의원, 김길동 신안수협조합장, 김충남 전남도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장, 김상윤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장, 남상용 신안관광협회의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체굴 시범양식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중간점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입식한 개체굴의 성장상태와 테이블형 양식시설물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향후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한 양식어업인 지원과 인적자원 육성, 국내외 유통 및 판매 그리고 관광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신안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개체굴'양식품종의 도입과 신안수산연구소 설립해 전국 최초로

개체굴 종자 500만미를 생산해 자은, 비금, 도초, 하의, 신의 등 총 9개 지역에 개체굴 시범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우량 신안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수산'을 위해 2019년 신안군 "제1기 개체굴 양식학교"를 운영해 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프랑스 개체굴 양식전문학교에 어업인 5명을 입학시켜 4주간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개체굴 양식 전문인력을 육성해 현재 신안군 개체굴 시범양식장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은 개체굴 종자생산, 중간육성, 시범양식, 가공처리 등 기술개발을 통해 개체굴 완전양식을 확립해 청년 및 전업어가, 귀어자에게 개체굴 양식기술 교육을 전수하는 등 양식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갯벌에서 자란 개체굴은 2021년도부터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소비될 것으로 보이며 맛과 향이 뛰어나고 유통기간이 길어 가격 경쟁력이 매

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개체굴 전용 처리시설'을 구축해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신선한 개체굴 생산을 통해 국내유통 및 아시아권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체굴 양

식을 통해 청년, 어업인, 귀어자에게 교육기회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은 물론 외화 수입원의 견인역할 등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기석/기자



김제시, 전국최초 청소년 수당 11월부터 지급

관내 거주하는 만16~18세 청소년 모두에게 연 최대 60만원 바우처 지원

김제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드림카드 사업을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관련조례 제정·공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204백만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청소년드림카드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1일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대상자는 2002~2004년생 1,976명이다. 사용처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독서

실, 직업기술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학원, 서점, 이·미용실, 문구점 등이며 가맹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신청은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인 10월 1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 집중신청 받을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사업인 만큼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는 소득변동에 따른 자격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기를 응원'한다면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으로 인해 우리지역 자부심 향상과 함께 청소년층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진안군청 역도부소속 유동주 선수, 진안홍삼먹고 금메달 번쩍



진안군청 역도부소속 유동주 선수가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성남도 고성군에서 열린 2020년 제92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해 '진안홍삼의 힘'을 확실히 보여줬다.

유동주 선수는 22일 남자 일반부 89kg급 경기에서 함께 366kg을 들이 라이벌 정현섭을 1kg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날 유동주는 인상에서는 165kg을 든 정현섭에 4kg 차로 밀렸다. 그러나 용상에서 205kg에 성공하며 200kg을 든 정현섭을 5kg 차로 제쳤

고 합계에서 정상에 올랐다. 유동주 선수는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진안군과 감독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긴장을 놓지않고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 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동주 선수는 현 국가대표로 전국체전에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3관왕을 기록했으며 올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등 국내무대를 평정해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메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기대주다.

유종철/기자

장수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민·관 협약 체결

장수군은 24일 장수한우지방공사장, 장수농협장, 장계농협장, 무진장축협장,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협약을 통해 장수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명을 '장수한우'로 협약하고 한우 생산·도축·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규약을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각 유통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유통 판로를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힘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구체화 방안을 협의한 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수한우'를 공동브랜드명 으로 사용한다.

장영수 군수는 "농가 소득을 위해 유통주체들과 생산자협회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장수군 대표 특산물인 장수한우의 전국 브랜드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공동 협약을 통해 우리한우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이 모델이 선례가 되어 우리군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한글대학 어르신, 완벽한 유튜버 변신 전국에서 '인기몰이'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시의 한글대학 어르신들이 완벽한 '유튜버'로 변신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글대학 한마음 글마실 기자단'을 위촉, 한글대학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직접 유튜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총 5편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한글대학 어르신과 한글대학의 이야기는 물론 돈암서원, 선사인랜드 등 지역의 관광명소를 직접 취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어르신들의 꾸밈없는 언변과 특유의 솔직함이 어우러져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시리즈로 제작된 영상은 총 2편이 넘었고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은 것에 이어 KBS '다정다감', '거북이 뉴스' 등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인기에 힘입어 기존 5회로 예정되어있던 시리즈를 더 확대 편성하고 할매기자단 어르신들이 더욱



재미있게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힘껏 돕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버로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유튜버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뿌듯하고 신이 난다"며 "좋은 기회를 통해 한글대학 친구들과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한글대학 어르신들이 단순한 한글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밝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괴산군, 추석 앞두고 유튜브 '국민안내양TV'로 괴산 농·특산물 홍보 나서

충북 괴산군이 또다시 유튜브를 통한 농·특산물 판촉에 나섰다.

군은 어르신들의 BTS 가수 김정연 씨가 진행하는 국민안내양TV를 통해 냉동 대학찰옥수수과 괴산청결고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면역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속 좋은 추석 선물이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괴산군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군 대표 농·특산물의 장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국민안내양TV '뽕뽕지 홍보로드'를 통해 소개한 냉동 대학찰옥수수는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대학찰옥수수를 곱창 그대로 얼려 만든 옥수수 가공 상품이다. 최봉호 전 충남대 교수가 지역 농민과 합심해 만든 괴산대학찰옥수수는 당도가 높아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고 쫄쫄쫄쫄한 식감이 뛰어나 대한민국 대표 여름 간식으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괴산 대학찰옥수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웰빙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다. 냉동 대학찰옥수수는 대학찰옥수수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편의성도 갖췄다. 소비자는 대학찰옥수수를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 갓 삶은 대학찰옥수수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대학찰옥수수와 함께 소개된 괴산청결고추 역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명품 괴산 농산물로 단

맛과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 감칠맛이 자라며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를 뺀아 만들기에 좋다. 군은 이번 온라인 홍보가 괴산군 농가들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요즘, 냉동 대학찰옥수수와 괴산청결고추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맛보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2020년 제2회 초·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전수식 성료

삼척시는 2020년 제2회 초·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전수식을 지난 24일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했다. 삼척시 평생학습관 검정고시반은 지난 8월 22일 실시한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총 15명의 수강생이 응시해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규 교육 과정 기회를 놓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삼척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반은 지금까지 총 337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성취감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음성군, 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 연장 접수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진과 글로 함께해요

충북 음성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0년 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을 오는 10월9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 접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반갑게 만나지 못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족사랑 공모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 공모전은 부모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 아

빠의 육아 참여, 형제·자매가 있어 좋은 이유 등 가족사랑이 잘 나타나고 출산장려 공감대가 잘 표현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수기 공모전은 결혼·출산을 통해 겪은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동받은 경험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공모할 수 있다.

음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응모 선

정서를 내려 받아 사진 또는 원고와 함께 오는 10월9일 오후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진과 수기 각각 10점을 선정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입선 5명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후 사진 우수작은 음성군 청사 등에 전시하고 수기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및 소개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태안군, '어린이는 창의력 쑥쑥 엄마아빠는 문화생활'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속도낸다

이달 조달청과 건축설계용역 맞춤형 서비스 계약 체결

태안군이 어린이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문화·복지공간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는 태안을 동문리 산 6-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30억원을 들여 가족형 생활문화센터 및 어린이 문화시설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복지인프라 시설이다. 군은 지난 7월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달 21일 조달청과 건축 설계용역 맞춤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직접 건축설계를 관리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체계적·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건설기술심사·설계경쟁제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돼 설계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달 말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해 11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군은 공모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10월 중 현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최종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올해 말 설계용역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내년 7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9~10월 중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

라고 전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그동안 국·도비 확보 및 중앙투자심사 등 어려운 과정을 모두 통과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공식 사이트 9월 28일 오픈

영상 콘텐츠, 체험 온라인 접수 등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제39회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공식 사이트가 오는 28일 공식 오픈한다. 'ON-슬기로운 인삼생활'을 주제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를 통해 올해 금산인삼축제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금산인삼TV', '방구석 풀썩체험', '집콕 아무나 도전' 등 영상 콘텐츠와 '인삼캐기체험', '온라인 인삼·약초체험' 온라인 접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돼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 유튜브 채널과 연계된 '금산인삼TV'는 금산과 인삼을 테마로 제작된 재미난 영상들이 가득하다.

축제기간에는 '해설이 있는 개삼제'와 '지금쯤은 삼시 삼밥'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인삼왕 선발대회', '금산문화예술제' 등 현장감을 살린 영상도 이곳에서 시청할 수 있다. 개막당일에는 화상 앱을 통해 방송국과 연계된 '랜선 개막쇼'도 즐길 수 있다. '방구석, 풀썩체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삼주 만들기, 인삼셰이크 만들기, 향초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의 체험 재료를 배송하는 온오프라인 인삼약초체험이다. 우리가족세트, 엄마아빠세트, 우리아이세트로 나눠져 있으며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부터로 온라인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삼캐기체험도 같은 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인원을 매일 24명으로 제한해 진행되며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집콕, 아무나 도전' 코너에서는 색다른 4가지 이벤트가 진행된다. '삼시세끼, 인삼푸드 대화'는 쉽고 간편한 인삼음식 제작방법을 영상으로 올리는 방식이며 '금산 건강댄스 챌린지'는 금산 건강댄스영상을 따라해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는 공모전이다. '우리가기 심쿵 테스트'는 집에서 우리아기의 특별한 순간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과거 금지가요를 주제로 한 '추억의 금지가요, 온라인 가요제'도 참여해 볼만하다. 우승자는 개봉예정작인 영화 '금지가요' OST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잡을 수 있다.

온라인 이벤트에는 에어팟프로 증정기, 금산인삼, 백화점상품권 등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축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삼구매자를 위한 온라인 마켓도 눈여겨 볼만하다. 인삼구매정보를 영상으로 담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인삼가공제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국제인삼교역전, 금산군 후회 피해 농업인 등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인삼 직거래 판매전 등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금산의 매력을 뽐내는 '금산, 동네

한바퀴', 인삼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카드뉴스로 알려주는 '인삼, 누구나 난', 주민들이 직접 금산의 정겨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어서와요, 금산은 처음이쥬', 지역 청소년들이 금산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금산, 어디까지 가봤니?' 등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Hi, Ginseng' 코너에서는 미국, 베트남, 대만, 홍콩,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내 온 인삼을 주제로 촬영한 재미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금산인삼축제를 검색하면 된다. 사이트 운영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1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공식 사이트 이외에도 관련내용은 금산인삼축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태안군,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지원·위문 나서

태안군이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구에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기초수급자·차상위층·저소득층 중 독거노인·중증장애·인·조손가정·한부모가정을 우선으로 총 644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5만원의 '저소득 취약가정 명절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90명과 취약가정 90가구를 1대 1로 매칭, 이달 21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각 공직자가 해당 가정을 찾아 위문하는 '1공무원 1가정 결연 위문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위문활동은 올바른 공직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

웃을 찾아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기초수급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과 공직자 간 자발적 결연을 통해 따뜻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취약가정과 결연을 맺은 공직자들은 자율적으로 결연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 가사지원 및 건강상태 파악에 나서며 군은 결연 공무원들이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생계 및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군 복지증진과 직원 20여명이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송편 등을 직접 만들고 불고기·김치·식혜를 함께 준비해,

다음날인 23일 8개 읍·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했으며 추석을 앞둔 28일에는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인사와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가세로 군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복지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 행복 지수를 높여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제26회 남원시민의 장 4개 부문 확정

남원시는 지난 22일 남원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26회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4개 부문 4명을 확정 발표했다.

남원시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남원 최고영예의 상이다.

문화체육장 김만열씨는 현재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34년간 재임하며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춘향제에서 뮤지컬 춘향, 흥부제에서 판소리 다섯마당을 공연하는 등 지역 축제 및 남원 국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남원국악인과 국악고 학생들로 공연팀을 구성해 남원의 국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남원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으로 적극 활동했다.

효열봉사장 고명철씨는 2016년 7월부터 3년 9개월간 남원시 사랑의 열매나눔봉사단장으로 역임하면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법무부 법사랑 지역연합회 등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나눔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

산업근로장 이춘경씨는 ㈜풍년농장 대표로 축산업 분야에서 축산선진화 시스템 운영과 바른 먹거리 제공 등 국내 양계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도통동 발전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장학금 기탁과 각종 봉사활동 추진으로 시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애향장 장영복씨는 ㈜서일스피코 대표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고향뿐만 아니라 타지역을 포함한 모교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고향 농특산물 애용, 고향에 기업유치 노력, 고향의 각종 행사 격려금 및 재난 후원금 지원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해 고향민의 귀감이 됐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남원 고향 행사에 적극 동참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향우들의 자긍심 고취와 고향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남출기자

2020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 시상

제17회 상주 전국한시백일장 장원은 조희욱씨

2020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제17회 상주 전국한시백일장'의 장원은 '耕田 조희욱'씨가 차지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24일 시청 시민의 방에서 조씨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한시회 상주지회와 김중호 지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제17회 상주 전국한시백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백일장으로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총 302편의 수준 높은 한시들이 접수됨으로써 상주의 한시 문화 부흥에 기여했다. 상주 전국한시백일장은 상주시의 문화유산인 '낙강범주시회'를 재현함으로써 문향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낙강범주시회는 선비들이 낙강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는 행사로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올해의 시제는 '상주 임란복전전적지'로 선정해 진행됐다. 지역별 한시분야의 권위자인 5명을 고선관으로 위촉했고 9월 20일 함창유림회관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5명, 가작 40명, 특별상 2명으로 총 63명이 당선됐으며 대회결과는 9월 24일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됐다.

이원형기자

신득상 의장, 농수산물 판매 지원 사격

강화 농수산물 판매 현장 방문

강화군 의회 신득상 의장이 강화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분주하다.

신 의장은 지난 23일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판매자·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관내 식품제조업체 에버그린 팜의 홍기창 대표와 함께 세이브존 광명점 식품관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며 '지역 농가 살리기'와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이브존은 서울·경기·전주·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유통망을 가진 백화점 형식의 대형 할인매장으로 현재 강화농수산물인 매추리알·순무김치·인삼세트·느타리버섯·속노랑고구마·새우젓 등을 전국 9개 지점의 진열대에서 판매하고 있다.

구매방식 또한, 반품 없이 직매입 현금결제 조건으로 지난달에만 약 8천만원 상당의 강화 농수산물을 매입하며 관내 제조업·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세이브존 식품매입부 관계자는 강화 농수산물 판매 진열대를 함께 돌며 "2년 전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강화 농·특산물을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강화 농수산물을 고객들께 널리 알리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을 추가 입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강화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득상 의장은 "강화 농수산물은 천혜 자연이 만들어낸 전국 최고의 고품질 상품들이라서 보다 많은 특산

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며 "지역민들에게 판로 확보와 안정을 소비자들에게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남기자

김주수 의성군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23일 농업이 선정한 '2020 지역농업 발전 선도인상'의 수상자로 선정, 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8명의 지자체장이 선정된 이 상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단체장의 업적을 알리고자 2013년 농업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까지 12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역임하기도 한 김 군수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득원개발, 현대화·규모화에 의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마늘·쌀·자두 등을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육성시키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를 통해 매년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한 지붕없는 생태박물관 조성 등으로 의성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확보에 명실 공히 기여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귀농·귀촌지 육성 농업·농촌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농협 RPC 및 DSC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 제고 APC 저온창고 신축 등으로 농특산물 유통체계 개선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한 통합마케팅 실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의성군은 경북 1위, 전국 2위의 귀농가구를 유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농가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유통망 구축, 스마트팜 조

성 등으로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상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의성의 농업인들께서 경제적 풍요는 물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은평구, 추석맞이 '집콕 신나는 이야기 여행'

은평구는 추석 명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집콕 신나는 이야기 여행' 영유아 가족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직은 서로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가정에서도 재미있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뮤지컬 및 인형극을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은평구 영유아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행사라서 그 의미가 더 크다. 공연 일정은 총 5주에 나누어 진행하는데 1주 [인형극] 흑부리영감 노래주머니 2주 [뮤지컬] 깃털피리 3주 [뮤지컬] 입냄새 왕 구리구리 4주 [인형극] 도치의 모험 5주 [뮤지컬] 아빠와 함께하는 요술지팡이 5가지의 공연을 매주 금,토,일 3일간 영유아 가족에게 제공되며 특별히

추석 연휴기간에는 5일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유튜브 공연 링크 주소를 문자로 받게 되며 주말 정해진 기간동안 횡수에 제한 없이 관람가능하다. 신청방법, 공연 일정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들의 웃음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사회라는 점을 상기하고 10주년을 맞이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건강한 은평구로 발전해 갈 수 있게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긴 연휴 기간을 통해 그동안 지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정에서 풍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공연으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루 빨리 온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풍성한 한가위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집콕! 신나는 이야기 여행

1. [인형극] 흑부리영감 노래주머니 9. 30.(수) 오전 10시 ~ 10. 4.(일) 오후 5시(5일간)
 2. [뮤지컬] 깃털피리 10. 9.(금) 오전 10시 ~ 10. 11.(일) 오후 5시(5일간)
 3. [뮤지컬] 입냄새 왕 구리구리 10. 16.(금) 오전 10시 ~ 10. 18.(일) 오후 5시(5일간)
 4. [인형극] 도치의 모험 10. 25.(일) 오후 5시(3일간)
 5. [뮤지컬] 아빠와 함께하는 요술지팡이 11. 1.(일) 오후 5시(3일간)

○ 상영기간 : 2020년 9월 30일(수) ~ 2020년 11월 1일(일)
 ○ 대상 : 은평구 영유아(만5세이하) 가족 1,000명
 ○ 신청방법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www.epmjuccic.co.kr)
 ○ 관람방법 : 유튜브로 송출되는 공연 영상 관람 후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즐거움이야기 게시판에 후기 작성
 ○ 문의전화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02-351-8932~8941)

엔택트시대 안성맞춤 공연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무관중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이천아트홀에서 오는 9월 26일 엔택트시대에 어울리는 클래식 교육공연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을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이해하기 쉬운 클래식 강의와 '과르텔엑스'가 선보이는 아름다운 연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이천아트홀 9월의 '문화가 있는 날'로서 오후 4시 이천시청 유튜브 채널에 접속한 모두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은 2008년 '에당아트 TV'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그 후 클래식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클래식에 대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는 임소문을 타며 클래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강력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보고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며 새롭게 입문하게 된 사람 역시 많아지며 2008년 이후 클래식 교육공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천아트홀 또한 2012년 '조운범의 파워클래식-한 시간에 듣는 서양 음악사'로 첫 선을 보인 후 때때 새로운 주제의 작품을 이천시민에게 꾸준히 선보이며 거의 모든 공연의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이천아트홀을 대표하는 클래식 교육공연의 스테디셀러 자리 잡아 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들의 자율 참여로 진행된다.

이에 이천아트홀 또한 2014년부터 매해 품격있는 공연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왔으며 2020년 올해에는 지난 7월 '한태인 콘서트'를 시작으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만나고 있다.

박상찬/기자

도봉문화재단, 사이버도봉예술극장 개관

전국 지역문화재단 최초 온라인 공연장 '사이버도봉예술극장' 개관

침체된 문화·예술시장에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되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도봉구 도봉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 지역문화재단 최초로 온라인 공연장인 '사이버도봉예술극장'을 9월 개관했다. 사이버도봉예술극장은 구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장이다.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 위치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공연장과 같이 예술가·단체를 위해 기획, 대관도 운영된다. 사이버도봉예술극장은 개관 공연으로 9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댄스이더 샤프르 창작발레 '레미제라블'을 선보인다. 빅토르 위고 소설 '레미제라블'은 이미 다양한 장르에서 사랑받고 있는 명작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전파발레 작품으로는 최초 각색되어 선보일 예정이다. 예매는 플레이도봉 홈페이지에서 9월 24일 목요일 자정까지 전석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관람방법은 PC·모바일에서 사이버도봉예술극장 접속카카오톡ID로 로그인관람공연 클릭구매후번호 입력 후 관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2020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랜선타고 펼쳐진다

KBS Kpop 등 6개 채널 생중계, 실시간 채팅으로 관객과 소통

인천의 대표 음악축제 '2020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된다. 인천광역시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올해는 오는 10월 16~17일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이번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무관중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대신 락 페스티벌 공연 현장은 KBS Kpop와 1theK 등 6개 채널에서 생중계 한다. 아울러 온라인 관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 화상화면으로 연결해 아티스트와 관객이 모니터를 통해 메시지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의료진, 봉사자 및 인천 시민, 락 마니아, 출연진과 함께 락스피릿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전달할 계

김중남/기자

산청문예회관 공연 온라인으로 안방 찾아갑니다

26일 오후 3시 연극 '나르는 원더우먼' 생중계

객'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2007년 '홍가에 별들아라'로 제25회 경남연극제 대상과 연출상, 연기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전국연극제에서도 금상과 연기상을 수상했다. 이후 2009년 '거제도', 2010년 '주인공', 2012년 '선녀씨 이야기', 2015년 '갯골의 여자들', 2016년 '그 사람이 있었다', 2019년 '꽃을 피게 하는 것' 등 수준 높은 창작극을 연거푸 선보였다.

남궁영기/기자

산청문예회관이 경남도내 우수 문화공연을 무관중 생중계로 방영한다. 군은 극단 예도의 연극 '나르는 원더우먼'을 오는 26일 오후 3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4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산청 나르는 원더우먼'을 검색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극단 예도가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단체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수준 높은 공연 감상의 기회제공으로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공연단체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나르는 원더우먼'은 제36회 경상남도연극제 단체대상, 연기대상, 연출상과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금상을 수상했다. 나르는 원더우먼은 가난을 벗어나려 버스를 차장으로 취직 한 '희숙'과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이야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꿈을 격려하며 첫사랑의 설렘도 키워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한편 지난 1989년 창단한 극단 예도는 1991년 '일요일의 불청

토픽코리아 도서출판 '트렌드 베트남 2020' 단행본 발간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가 기획·편집한 '트렌드 베트남 2020'은 토픽코리아·도서출판 참이 지난 8월 중순에 발간하였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세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와 금융부터 M&A, 세무, 노무와 특허법 등, 베트남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주제들을 관련 현지 전문가 20명이 집필하여, 독자들이 최신 베트남 경제이슈와 폭넓고 심도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3월 기준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에는 8,700여 개의 한국기업(프로젝트 포함)이 진출하여, 총등록자본 685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135개 FDI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의 자리매김을 지속하고 있다. 전세계 경제가 미중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에 7.08% GDP성장을 달성한 이후, 2019년에도 7.02%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6.6~6.8%를 초과 달성하여, 세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망한 FDI투자처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코참(KOCHAM)은 살아 있는 베트남 경제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으로 경제·경영 분야 '트렌드 베트남 2020(제3호) 참 베트남 경제백서' 발간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혼돈과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여,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보다 현명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설정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의 공동저자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겸직) 투자자산전략부 경제광 연구위원,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 강문경 대표, 신한베트남은행 재무기획부 김태원 부장, 신한베트남은행 기업고객부 이동길 부장, 신한퓨처스랩 김선일 부장, EY Vietnam & Indochina(M&A)거래 & 경영 자문 서비스) 최필균 이사, 법무법인 JP 베트남 사무소 법인장 김지현 변호사, 베트남경제연구소 김석운 소장, 로투비(Law2B) 대표 김유호 미국 변호사(베트남 법무

부 등록 외국변호사)이다. 또한, 법무법인 김&장 조법근 변호사, 법무법인 아세안 베트남 최지웅 변호사, KOTRA 호치민무역관 김찬영 변호사,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ROUSE LEGAL VIETNAM 이윤영 변호사, 베트남 안전관리회사 SOL VINA 이재성 대표, 호치민시 안진협회 Mr. Ton Trong Nghia 연구관, KPMG Vietnam 원일 회계사, CTAC EJ Vietnam 김일중 대표 회계사, 호치민시 총영사관 양승혁 관세관, 관세법인 유니 Cargo Rush International 변상현 관세사이다. 토픽코리아·도서출판 참은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 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회원사이다. 또한, 미스코리아(미교) 출신 모델 장현욱과 발라드가수 구정현이 홍보대사이다. 토픽코리아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에 한국어교육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브이토픽(V-TOPIK) 한국어학원을 하노이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토픽코리아(TOPIK KOREA) 브이토픽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 이래로 고급 한국어 통번역과 토픽(TOPIK) 준비과정에서 하노이 1위라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도서출판 참은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의 관계사이며 참 한국어 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토픽(TOPIK)시리즈 등 한국어교재와 관광통역안내사,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2급, 직업상담사 2급 수험서, 한국어교원 필독서 '나는 한국어교사입니다'와 해외여행 필독서 '교수여행비법(항공편)', '리얼크루즈여행' 등 각종 단행본을 발간하는 출판사이다.

참 한국어학당(참코리아닷컴)을 오픈해 한국어능력시험(토픽)·회화·문법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베스텔리 '베트남투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베트남 문화의 길'을 건다. '베트남 경제 리포트', '질문의 응답으로 배우는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 등 베트남의 모든 것과 구성요소를 소개하는 전문 책을 펴낸 바 있다.

고정화/기자

부산시, 미래 신산업 대응 등 연구·개발 예산 1,156억 투자

'2021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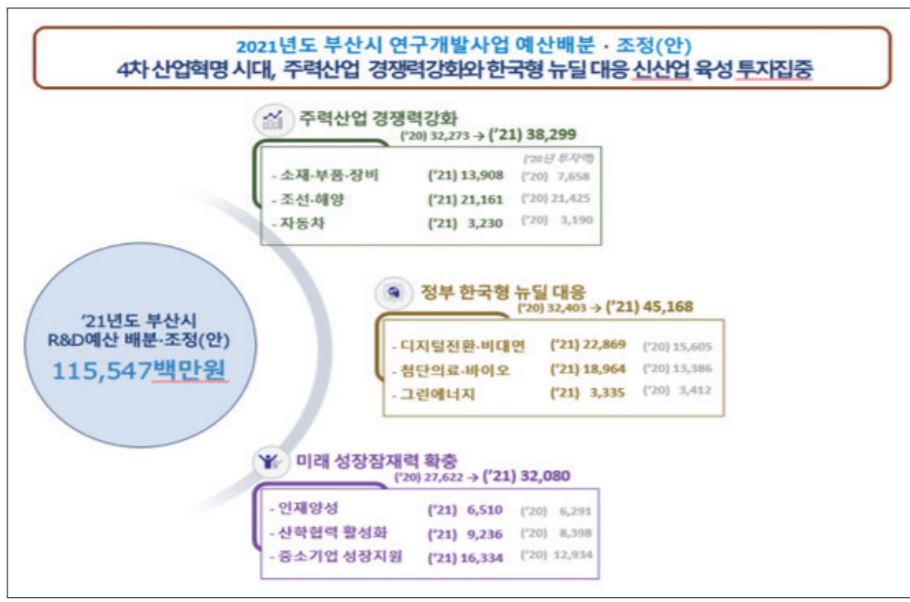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2021년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은 연구·개발예산 전문위원회의 심층검토를 거쳐 지난 9월 8일 개최된 연구·개발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규모는 2020년 1,101억원 대비 5.0% 증가한 총 111개 사업 1,156억원이다. 올해 12월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특히 집중 투자내용은 '주력산업 경쟁력강화'에 383억원 '정부 한국형 뉴딜 대응'에 451억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321억원 등이며 이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적·산업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는 부산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2021년도 부산시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변화하는 미래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139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친환경·중소형 고속선박 개발 등 조선·해양산업의 첨단화에 212억원을,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에 32.3억원을 집중적으



로 투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신시장 선점과 과학기술·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비대면 관련 기술개발에 228.7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첨단의료·바이오 사업에 189.6억원을 투자해 시민의 의료권 확충 및 의료·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태양광에너지, 과잉반도체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활용 분야에 33.4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술·인공지능·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 인재, 산업인프라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로봇 관련 산업기술 인재, 의사 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에 65.1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중소 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산·학 연구 협력에 92.4억원을,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163억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역산업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점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남동구, 중소기업 판로 개척 위한 '대양주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의 해외바이어와 관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대양주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인도네시아 화상 수출상담회,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이다.

남동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대양주를 타깃으로 진성 바이어를 발굴했으며 50건의 화상상담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대양주 화상 수출상담회 첫날인 지난 22일 본관 7층에 마련된 '수출지원 영상회의실'을 방문해 해외 사업수행사와 현지바이어 대표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 강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출 제3국인 한국과 상호 보완적 관계가 기대되는 국가로 최근 K-pop, K-뷰티가 확산되며 화장품 분야를 비롯한 소비재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대양주권역은 중국과 미국에 치중된 수출 환경을 다변화하기 위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시장으로 평가해 중소기업의 니즈가 많은



지역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활동의 회복을 적극 준비해야 할 때로 우리 남동구 기업이 그 길목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남동구는 수출판로 개척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제 4차 산업의 발전과 온라인 기기의 상용화로 더 넓은 세계의 시장으로 더 많은 기업이 수출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온택트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출 무역 방식인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는 변화의 추세와 중소기업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남동구청 본관에 전문 영상시설을 갖추고 통역을 무료로 지원하는 '수출지원 영상회의실 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2020 문경사과축제 온라인 축제 준비 착착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16농가 온라인 판매 참여, 대도시직판행사도 병행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지역 내 이름난 농산물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가을축제가 주는 재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문경시는 발 빠르게 사과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축제방향을 잡고 7월부터 준비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기간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사과축제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과판매와 참여 이벤트 진행, 사과 따기 체험, 찾아가는 사과축제, 홍보관 운영 등으로 꾸며진다.

홈페이지는 열여섯 농가가 판매하는 맛있는 문경사과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부스 운영 문경사과 송을 이용한 어린이 온라인 댄스 챌린지 문경사과 카빙자랑 쇼 문경사과 사행시 짓기 문경사과축제 추억의 앨범 문경사과 구입 인증샷 촬영 15회를 맞는 문경사과축제를 기념해 총

60명을 초청해 15,000원 상당의 쿠폰을 전달하는 1515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다. 모든 이벤트에는 경품이 있어 색다른 추억도 만들고 경품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당초 9월말 오픈 예정이었으나 흐린 날씨와 잦은 강우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과 사진촬영이 늦어져 10월 초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도시 현지에서 문경사과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찾아가는 문경사과축제도 운영한다. 찾아가

는 문경사과축제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입점해 문경사과를 판매하는 이벤트로 이마트 40개소, 롯데마트 55개소에서는 시식행사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문경사과를 맛보이게 된다.

10월 16일 오후3시에는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앞에서 문경사과 홍보관 개장식 행사도 치른다.

홍보관에는 문경사과 품평회에 출품한 문경의 명품사과와 영예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원형/기자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9.23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를 모을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일평균 이상 도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조성한 살-일-여가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

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에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 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

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것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해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도심융합특구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며 크고 작은 성장거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 검색 | 진도아리랑 |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